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 대전공장



‘환경·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리더

환경과 이윤에 동일 가치를 둔 지속적 미래가치 개발, 순수 제조기업
공장서 ‘노 마스크’가 목적, ‘어제 반감’을 ‘오늘 호감’으로 만든 기업

대 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논리를 인용하곤 한다. 그래야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농업의 어려움이야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한미 FTA의 위험성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보는 시각이 있어 이채롭다. 과거 개발독재가 현재의 개방독재로 변형되었다는 진단이다. 한미 FTA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대 사안이라는 진단이 우리를 더욱 궁금하고 아연 긴장케 한다.

올해 들어 정밀화학제품인 농약의 선진 제조 과정 및 현장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농약 및 제조환경,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과 선입견을 해소코자 마련한 네 번째의 장(場). 대전 산업단지내에 위치, 제조업은 물론 농업인을 위한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 대전공장(공장장 金龍哲)을 찾았다.

한국농업과 밀접, ‘최우수 환경업체’ 포상

“바이엘은 정부 가이드라인 보다 한층 강화된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는 ‘Responsible Care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전 세계적인 명제를 전제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 해법을 제공함으로써 작물보호, 생명과학 및 환경과학에서 품질·보건·안전·환경(QHSE)의 산업 선두주자로 인식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즉 환경친화형 생산 공정과 환경보건안전 관련 정보공유, 환경보호 문화의 개발과 관리 그리고 전문 조직 관리와 전문지식인 양성 등 끊임없이 각종 환경관련 인프라를 유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50여년을 한국농업과 궤를 같이 해 온 뿌리 깊은 신생기업(?) 바이엘의 생산현장을 이끌고 있는 金공장장의 일성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바이엘의 철학에 걸맞지 않는 그 어떤 사업도 가능하지 않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과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51주년이 될 만큼 한국농업과 긴 인연을 가지고 있는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다양하고 우수한 작물보호제를 국내에 선보여 왔으며 지난 2003년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로 공식 출범, 작물보호사업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생산·공무·품질팀을 주축으로 수요기획·재고관리·환경안전팀 등으로 구성된 대전공장은 5개동의 공장동과 원부원료창고, 각각 1개동의 동력동 및 사무동, 후생관동 등 대지 면적이 5천여 평에 이르며 8개 제형 11개 생산 라인에서 100여명의 숙련된 임직원이 고품질의 제품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환경경영체제인 ISO 14001시스템 및 자체 환경관리로 지난해에는 세계 환경연합(UNEP)으로부터 최우수 환경업체 포상을 받은 바 있다.

실바코·코니도·바스타, 소득증대 기여

제조부터 포장까지 완벽한 제어 시스템에 의한 최고 품질의 제품생산이 가능하다는 금공장장은 “올해의 경우 1만여 톤, 약 1천2백만 팩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소포장의 경우 설명서의 글씨 크기와 기존 PVC라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제조비용이 더 발생하는 2중 종이라벨로 과감히 교체하였다”면서 언제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금공장장은 또 “실바코, 코니도, 바스


타 등 바이엘에 의해 탄생된 수많은 제품들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5월이면 기존의 단순 제형을 벗어나 바이엘의 최첨단 설비에서 제조되고 있는 입상수화제를 들여와 이곳 대전공장에서 포장, 농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설치구상에 여념이 없단다.

차별화 전략에 대해 금공장장은 “Responsible Care와 지속적인 개발 등 차별화 요소가 적지 않다”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진정한 바이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이고 수평적인 관리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의 핵심 인재화는 물론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장 내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는 금공장장은 제조 종사자를 위한 환경 및 안전시설에 대해 “현재 대전공장의 모든 설비는 바이엘 가이드라인에 의거,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치되었다”면서 “수화제의 경우 모든 혼합기에 온도측정이 가능한 감지기가 3개씩 설치되어 있다. 만에 하나 혼합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 일정온도 이상 올라갈 경우 자동적으로 물이 혼합기 내부로 분사되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2·3중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하고 설명을 이어갔다. “인화성 용제를 많이 취급하는 액상설비의 경우 스파크나 마찰열 또는 정전기로 인한 폭발 및 화재예방을 위해 모든 설비에 방폭설비와 완벽한 전류 접지 시스템 등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정전기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에 에폭시페인트 코팅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용제 또는 분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부원료 투입시스템과 최신 집진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며 1·2차 집진된 실내 공기는 대기 중에 방출하기 전에

탈취설비와 HEFA Filter 처리를 거쳐 최종 정화된 공기를 배출하는 환경시스템을 완벽히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이다.

끝으로 金공장장은 소비자에 대해 “인류 영속을 위한 식량자원 확보에 있어 농약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재”라면서 “막연한 유해성을 우려

하기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과학적인 농자재라는 성숙된 인식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언론에서도 제조업체의 현실을 명확히 조명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니 인터뷰

金龍哲 공장장

■ 회사마다 제조종사자 및 환경안전을 위한 최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바이엘만의 특정 시설이 있다면?

바이엘 대전공장은 주위 다른 공장과 더불어 운영되고 있고 인근에는 주택지역이 밀집해 있어 민원이나 환경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농약이 유출되거나 화재 진압시 발생한 소화수 등 단 한 방울의 오염된 물도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공장 전체를 일종의 커다란 그릇처럼 설계하였고 외부에는 지하탱크를 만들어 모든 오염수를 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용제를 많이 사용하는 유·액제 공장과 분·수화제 공장의 경우 냄새와 분진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완전히 차단하고 모든 혼합기 내부는 음압이 걸리도록 하여 분진과 냄새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공장 내·외부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전시설로는 분·수화제 공장의 혼합기 내부에서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물이 분사되어 초기에 진화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혼합기의 문을 열 때 작업자 보호를 위한 마스터키 시스템, 분진의 외부 방출 감지 시스템, 깨끗한 환경을 위한 더블파이프 시스템, 유·액제 공장의 방폭구조 시스템, 모터의 공회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 안전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 최근들어 약제의 변화가 다양합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등의 변화가 주는 의미와 어려움은?

한마디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또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약제로의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인 제형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디만, 신제형인 서방형 제형, 입상수화제 등의 경우는 많은 시설 투자비를 요구합니다. 이는 제품 값이 비싸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제조업체에게는 투자비 낭비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 농약제조 업체간 중복 투자가 아닌 시설을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는 임가공 생산으로 생산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최상의 제품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올해 주요 계획은?

생산 설비에 대한 인프라가 기 구축되어 있는 만큼 쾌적한 공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세워진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거한 자동화 설비의 추가 완비 등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공급,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조업의 모든 부문에서 모범이 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